

“코트 두면만 만들어 주세요, 제발”

여자초등 명문, 탄벌초 전용코트 없어 발 동동

■ 탄벌초등학교 선수들

* 124부		
순위	이름	학년
58	박민정	6
62	배서아	6
77	한금지	5

* 104부		
순위	이름	학년
31	원아영	4
32	김혜은	4
32	한현주	3
34	조아현	3

지난 2월 수원 민석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렸던 소년체전전발평가전에서 만난 정순화 코치의 인터뷰 약속을 잡고 경기도 광주 소재 탄벌초등학교를 찾았다.

아트마한 신아래 위치한 탄벌초등학교(교장 류동춘)는 지난 2003년 개교한 이래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 2,300여명 규모로, 개교와 함께 창단한 여자 테니스부는 2007-08 연속으로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해마다 상위권에 빠지지 않는 여자 테니스의 명문 초등학교이기도 하다.

그 성적은 올해로 16년째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정순화 코치의 선수 선발 방식에 있었다.

골프선수 안선주 지도한 정순화 코치

정 코치는 테니스부에서 운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3개월 정도 지켜 본 다음, 인성과 운동능력을 유심히 관찰, 평가 한 후 최종 선발하기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없게 한다. 가족이나 힘든 운동을 하려는 학생이 많지 않을텐데, 왜 그리 까다롭게 구느냐고? 살짝 물어봤더니, “어, 우리학교 테니스부 인기가 많아요. 해마다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데요?”라며 정색했다. 이어 “물론 운동선수에게는 운동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운동선수 생활을 계속 해 나가기

면, 닥쳐오는 여러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런 운동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죠! 인내심이나 성실함 등 인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소신을 밝혔다.

또한 “자랑이지만(웃음) 중학교 코치 선생님들이 우리학교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마도 실력 이외에도 성실함이나 인내심 같은 인성을 크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라며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존대말 쓰고 테니스에 재미 느끼게 해

정 코치의 지도 방식도 특이했다. 어린 선수들에게 경어를 쓰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누구나 스스로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 좋아하죠. 어린 학생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운동은 ‘재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불현듯 지난 해 여름 피아발아래 모 대학 운동장에서 하키연습을 하던 여자중학교 선수들과 코치가 훈련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코치는 신중 집적인 태도와 목소리로 학생들을 다그쳤고, 학생들의 힘든 표정 뒤에는 억눌린 듯한 억지로 하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밝고 즐거운 마음이 일컫지는 얼굴로 훈련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그래 맞아, 즐겁게 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

광주시립화학교+학부모+클럽생

“열악한 지원”이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정순화 코치에게 지원상태를 물어보았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 우리학교의 경우는 너무 좋아요! 광주시는 물론 협회와 학교에서 물심양면으로 너무 지원을 잘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여자 드로골퍼 안선주도 중학시절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지금은 비록 골퍼로 전향했지만 요즘도 운동복 등 수시로 후원해 많이 해요”



탄벌초 선수들과 16년째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정순화 코치(뒷줄 오른쪽 첫번째)

라며 자랑했다. 정코치는 미심쩍어 하는 기지를 선수휴게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제법 넓직하고 깔끔한 휴게실내에는 선수들이 공부와 휴식을 결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정순화 코치는 이곳에서 자신이 내준 ‘테니스부 숙제’를 직접 점검하고, 지도한다. 뿐만 아니라, 훈련도중 간식시간에는 이곳에서 간식도 먹으며 휴식을 하는데, 냉장고를 슬쩍 열어보니 각종 음료에다 빵, 과일 등이 가득했다. 신발이나 라켓 등 여러 용품들도 협회나 학교로부터 충분히 지원

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운동하면서 경제적 부담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코트 없어 2시간 거리 출퇴근 훈련

문제는 ‘코트’였다. 학교건물 옆의 자투리 공간에 클레이 코트 1면과 펜스로 구분은 해 놓았지만 그 아발로 초미니 연습장은 경기도 초동부 테니스 부동의 1위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았다. 코트 상태가 좀 열악한 것 같다고 했더니, 잠시 망설이던 정코치는 “아, 그것마저 6월이면 없어져요!”라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사정은 이렇다.

수년 전부터 현재 테니스코트가 있는 자리에 실내 강당 겸 체육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예산이 터 건축비가 떨어져서 올 6월,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코트를 만드는 방법도 건의 해 보았지만 예산이 없어 여의치 않다고 한다. 그럼 선수를 훈련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류동춘 교장선생님께서도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백방으로 뛰다니시고, 협회와 광주에서도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 것 같지만, 최악의 경우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전에는 아침 일찍 운동장에 미니네트를 설치해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인근 분당시립코트로 이동해서 훈련해야 하는데, 왕복이동에만 대략 2시간 정도 걸릴 뿐 아니라 학생들 안전도 걱정돼요”라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무척이나 중요하고도 다혈스러운 것은 학교나 광주시, 협회 모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탄벌초등학교 테니스부는 여자 단발림으로는 전국 최다의 선수(여명)를 확보하고 있고, 주니어 상비군이은혜까지 보유하고 있는 테니스 명문이다.

우리나라의 테니스 미래를 책임질 주니어 상비군이 포함된 꿈나무 팀이 코트도 없이 운동장에 미니네트 쳐놓고 연습하거나, 인근도시까지 출퇴근하며 연습한다? 이것은 한국테니스의 재앙이다!

우리모두 백방으로 애쓰고 있는 학교 및 광주시, 협회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힘을 보태자!

글·사진 광주=이진국 기자

청주에는 돔정구장 준공



청주수발정구장 돔 설치공사가 준공되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씩 청주시장은 20일 돔정구장 준공현장을 최종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를 격려했다.

청주수발정구장 돔 설치공사는 바람과 우천 등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사용가능하도록 돔 설치를 위한 공사로 2009년 10월 착공하여 공사진행 중 조립식구조물 제작설치업체의 경험부족과 자금난 등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준공하게 되었다.

청주수발정구장은 부지면적 8,183㎡에 연면적 7,614㎡규모로 코트 8면, 관람석 1,200석을 갖추고 야간에도 사용가능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 전천후 시설로 청주의 명물이 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충북정구연맹에 오는 4월 1일부터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정구수수는 물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